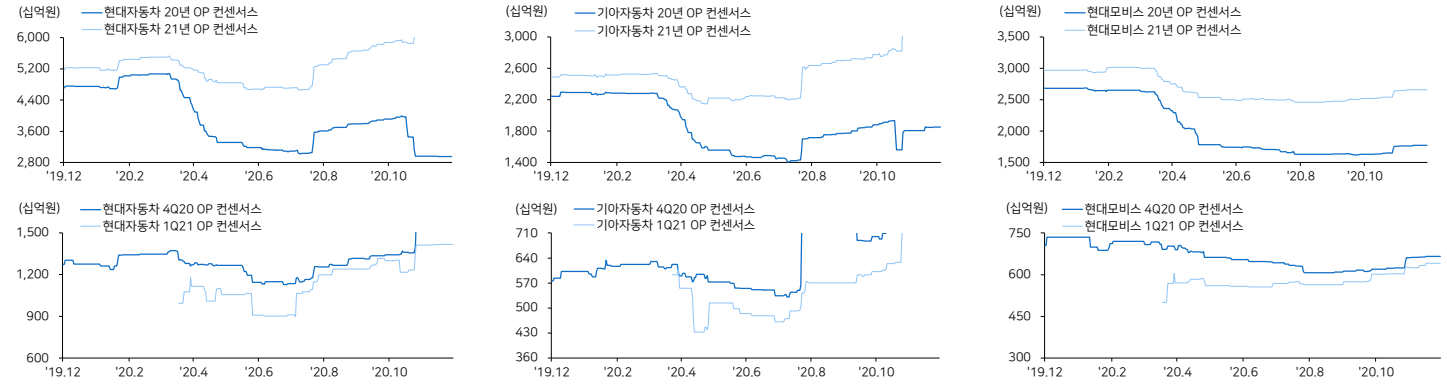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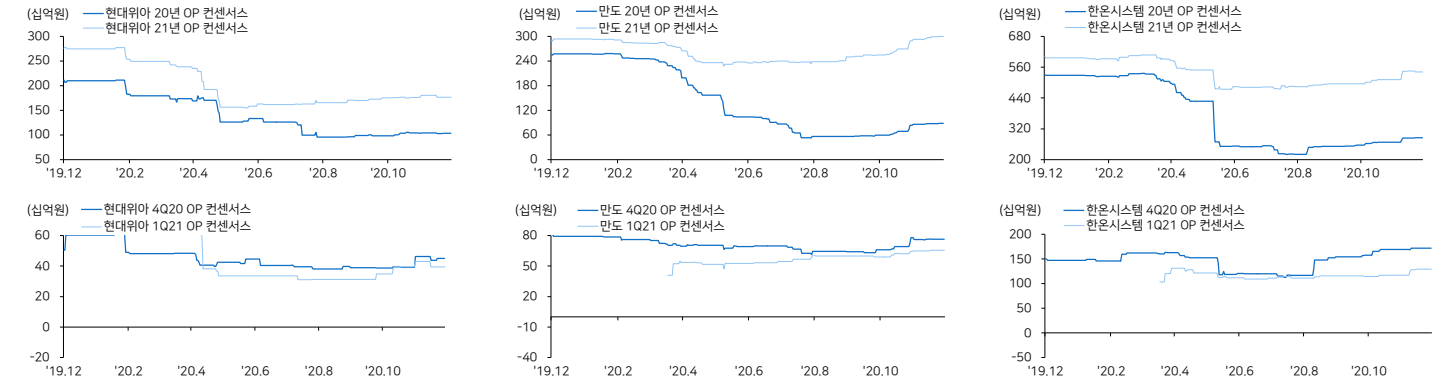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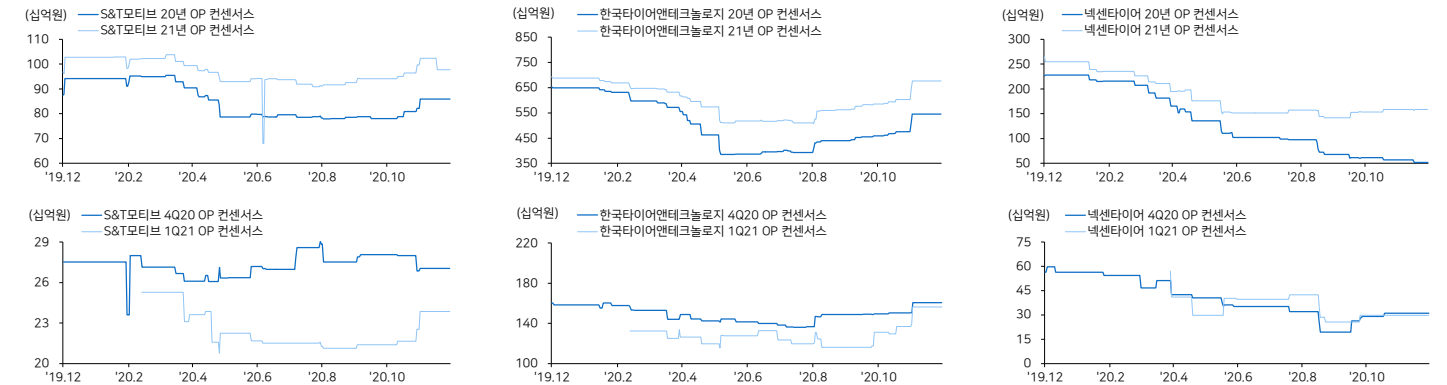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편 전기차? 온다...현대차, 내달 'E-GMP' 공개 (아시아타임즈)

현대차가 내달 처음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 E-GMP는 '편 전기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기차의 기반이 될. <https://bit.ly/3mnaEjw>

### 현대차·네이버 손잡았다...미래 모빌리티 어떤 시너지? (매일경제)

현대자동차그룹과 네이버가 손을 맞잡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 현대차와 네이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그같은 업무협약을 맺음. <https://bit.ly/2Jnf1MW>

### 기아차, 이집트 전 판매사 제기 330억원 손해소 12년 만에 승소 (더그루)

기아자동차가 이집트 전 판매사(딜러)가 부당 계약 철회를 이유로 제기한 3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기아차 이집트 법인은 12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을 비용부담 없이 마무리하며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됨. <https://bit.ly/39qF6ph>

### 폭스바겐 'ID.3' 10월 유럽 베스트셀링 EV 등극...27개국 1만590대 (지피코리아)

폭스바겐 'ID.3'가 지난달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EV에 등극. 유럽 자동차 분석 전문업체 자토 다이내믹스(JATO Dynamics)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유럽 20개국에 총 1만475대의 ID.3를 판매하며 10월 베스트셀링카 자리에 오른.(27개국에서는 1만590대) <https://bit.ly/3710p6X>

### 싼 차는 옛말...현대차, 수출 차 평균단가 2만 달러 육박 (조선비즈)

현대자동차의 수출 차량 평균 가격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에 육박.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평균 수출 단가는 대당 1만938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만7422달러)보다 11.3% 오른 수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002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9/20201129002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현대차 '세탁엔진 리스크' 해소 (한국경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세타2 엔진 리콜 조사를 종료하는 데 합의. 현대·기아차는 약 9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엔진 리콜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옴. <https://bit.ly/36hyVBF>

### 삼성전자, '무선충전' 특허 세계 1위...LG·현대차 '톱10' (뉴스웍)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무선충전 관련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분야 경쟁업체인 애플, 화웨이 등도 특허를 다량 보유 중인 가운데 LG와 현대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도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조사됨. <https://bit.ly/37caLaY>

### 예금발아 자동차할부금융 늘린다...GM, 은행업 허가 신청 계획 (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은행업 복귀를 시도하고 있음. 예금을 수탁해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GM은 은행업 허가를 신청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 <https://bit.ly/2JkBVHb>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